

2024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4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미래비전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대표 : 정신영			
이사 : 김세진, 김승혜, 김영환, 김종철, 우재욱, 이명광, 정신영			
감사 : 박대호, 임지선			
설립년월일	2011년 1월 1일	상근직원 수	13명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47, 505호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www.apil.or.kr	모 법인명	모 법인이 있는 경우, 기재
공익법인	Y	주무관청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설립목적			
한국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방지하는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기관, 법원 등에 대한 신청 및 소송 지원 2. 제도개선 및 입법 운동 3. 연구 및 교육 4.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5. 홍보 및 캠페인 6.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7. '법을 통한 공익 활동'의 중개 8. 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익사업 9. 기타 기관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사업			

● 조직의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3) : 총 55억2,600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41	521	514	581	587	534	447

- 최근 3년간 수익비용 내역 :

	2021년(연말)	2022년(연말)	2023년(연말)
수익 총계	833	1,073	1,124
재단 지원금 총액	0	0	100
비용 총계	660	760	883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취약한 외국인 법률지원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의 법률지원
취약한 외국인을 위한 입법운동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의 제개정 운동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강의 및 캠페인 진행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난민인권 #공익변호사 #환대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난민들을 적대하는 한국사회 -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율

전쟁과 무력 분쟁, 정치적 박해, 종교 자유 탄압, 소수자 집단에 대한 극심한 차별로 인하여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나 안전을 찾으려 국경을 넘는 숫자가 계속 증가. 제 1 세계를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유일한 피난처로서 기능하는 한국을 찾는 난민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에겐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의 부재 속 난민보호에 관한 의지 및 실질적 정책이 없고, 동아시아 여타국가와 같이 난민인정에 극히 인색함. 입국부터 심사, 정착까지 모든 부분의 난민인정절차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에 OECD 국가 평균 난민인정율 32%에 비해 한국은 현저하게 낮은 0.4~1%(2020 년, 2021 년 기준)의 난민만이, 그리고 인권단체를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은 난민만이 지위를 얻고 보호가 필요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한국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수년간 떠돌거나, 구금, 추방됨. 그럼에도 인권단체들의 수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의 난민들의 법률 조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함.

난민들이 머물 자리를 주지 않는 한국 사회 - 열악하고 미비한 난민 처우

한국에서 '난민'으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들은 제도 밖으로 내몰리며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림. 이들은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구금의 위험도 높음. 과거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을 수 없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도적 복지에는 기댈 수 없기에 자선단체의 시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 아이들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학교장의 재량의 영역으로 남겨두어 '권리'로서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음. 한국 시민들도 녹록치 않은 삶을 꾸리는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이 머물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때 다양성과 문화, 용기의 원천인 난민들의 자긍심 있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난민과 시민들의 어우러지는 연대와 공동체 형성 자체도 기대하기 요원함.

난민들도 희생양으로 삼아 가짜 해결책에 기대려 하는 한국 사회 - 난민들을 향한 혐오의 만연

더 나아가 원자화(Atomization)된 개인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소수자인 난민들이 종종 소환되고 있음. 이주사회로의 변화가 이미 다가온 한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강해져서 다양성 속 유대감을 유지하는 한국 사회의 연대를 저해하고 있는데, 트럼프즘 형태의 혐오정치가 한국사회에서도 조금씩 난민을 '우리의 몫을 빼앗는 문제의 근원인 낯선 타자'로 활용되는 담론으로 싹트고 있음. 일례로 한국 여성의 안전은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이 향상을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엉뚱하게 '타자'인 무슬림 남성의 유입을 주된 원인으로 이해하여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담론을 통해 그 사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해 온 취약한 난민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한국인'의 일자리 부족 문제의 원인을 '일 자리를 뺏는 외국인'들에게 전가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 대신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 불안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난민들을 소환되며 문제의 본질이 아닌 가짜 해결책이 제시되어 '다양한 우리'가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함.

지속가능한 활동에 한계를 맞닥뜨린 난민인권단체들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어필을 포함하여 부족한 맨파워와 조직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적대적인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낯섦 속에서 난민들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음. 그러나 많은 단체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활동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특히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만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권활동의 핵심적 축을 이루는 법률 조력 분야는 점차, 보다 냉소적 형태의 정책을 운용하려는 정부와 사법부의 기계적인 판단 속에서 운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난민들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시스템의 부재를 인권단체들이 몸으로 막아서 왔던 형국에서 운신능력이 줄어드는 피해는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입고 있음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법률 조력 기회 자체가 봉쇄된 난민들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무료 변호 [법률 조력활동]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부터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각 절차상 결과가 담당자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함. 이 때문에 비영리 인권단체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어필은 정부가 제공하는 국선변호 제도도 없이 '벽'을 맞닥뜨린 난민들의 '기댈 곳'으로서 '무료'로 난민들을 변호함. 또한 법률, 제도, 규범 및 오랜 경험의 전문가인 변호사, 국가정황 정보에 관한 리서처, 숙련된 통번역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 조력을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공항에서 갇힌 난민의 입국에서부터, 행정, 사법절차에서의 난민지위의 인정, 부당한 구금에서의 해제, 헤어진 난민 가족들의 결합, 영주권과 국적의 취득까지 기댈 곳 없는 난민들의 'Life-Cycle' 법률 조력을 하면서, 정부의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의 공백을 날카롭게 메꿔가고 있음.

2. 난민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 Advocacy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한국의 상황을 고려 어필은 변호사이자, 연구자, 활동가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개별 난민 사건 법률 대리와 '틀'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 난민인정절차 개별 사건 조력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 소송을 진행하거나, 연구, 연대활동을 통해 법무부, 외교부 등을 상대로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적으로 진행. 2018 년 제주예멘 난민 피난, 2021 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피난, 2022 년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와 같은 일련의 국면 속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기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직접 또는 언론, 시민들과 연대활동, 및 연구를 통해 제시함. 난민법 제정운동과 같이 법률의 제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를 통해 개별 법제의 입법 운동을 진행.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한국 사회 속 난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난민들의 권리 침해를 양산하는 제도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와 국회, 소송 등을 통한 제도 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

3. 모두가 함께 사는 한국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개별 난민의 조력은 결국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결국 한국사회의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사회를 현대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근본적으로 요구가 되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활동이 전무함.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활동의 중요성에 천착해온 어필은 특히 2018년 예멘 난민 피난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한 낯섦'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강의에 더욱 주력해 왔음. 특히 미래의 한국사회를 형성할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생과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대중 강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또한 실제 난민 및 외국인들을 전담하는 검사 및 출입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진행함. 지난 11년 동안 300회 이상의 강의를 통해 전국을 찾아다니고 있음. 또한 한국의 난민 지원 비영리 단체로서는 선도적으로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면 강의를 통해 만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온라인 공간에 난민의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들을 축적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음.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비영리, 영리 조직 통틀어 찾기 어려운 난민 법률 조력의 '전문성'과 '체계성'

변호사가 NGO에서 비영리단체에서 다중 정체성을 지니고 전업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활동 형태 자체는 종전 비즈니스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지원 모델과 완전히 다름. 어필은 그러한 한국 특유의 공익변호사 포맷 중에서도 난민분야에서는 어필은 독보적인 모델임. 어필은 ①국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난민에 관한 국제규범', '국내의 이민관계법령', '행정 및 사법 절차'의 축적된 전문적인 변호사풀, ②난민들의 출신국에 대한 국가정황정보(COI)에 관한 11년간의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 및 연구원 및 인턴을 통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리서치 풀, ③ 영어 외에도 불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 축적된 통번역 자원활동가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법률지원을 난민들의 개별 사건과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애주기에 맞춰 제공함. 국내의 환경에서 난민 법률 조력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고, 위와 같은 세가지 제반조건과, 많은 Work-hour를 요구하기에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 로펌은 프로보노 형태로도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도 어필과 같은 축적된 형태의 법률 조력 그리고 난민지위인정의 성공적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법률 조력은 어디서도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비록 인적 역량의 부족으로 수많은 난민들에 다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이러한 방법으로 어필은 지난 11년간 한국을 찾은 500명 이상의 난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왔음.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의 활동가로서 '헌신성' 있는 'Not 사건 But 사람 중심 난민'지원활동

어필은 더욱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넘어서 '헌신적'인 난민법률지원을 만들어 왔음. 공항에 갇히거나,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보이지도 않는 여러 난민들을 찾아가고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싸워 나가는 변호사들은 영리 로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임. 더욱이 난민사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계부터 법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4, 5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보노로 '분절된 난민 절차 일부'는 지원할 수 있으나 난민이 한국사회에 맞닥뜨리는 다양한 모든 벽을 넘어서기 위해 '사람으로서의 난민'을 전인격적 존재로 보고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어필은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로 수익을 내기 위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어필에서 상근 및 전업 변호사로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기에 다른 계산과 시간, 노력과 아웃풋에 관한 고려 없이, 또한 개별적 정치적 고려 없이 타협 없는 헌신적인 난민 조력을 해나갈 수 있고, 이에 전국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사건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난민법률지원을 해나갈 수 있음.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어필은 강의와 언론, 기자회견 등을 통한 메시지 전달 등 시민단체들의 일반적인 인식제고 활동과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체임. 한국의 대부분의 비영리 시민단체들보다 먼저, 단지 단체소식활동 소개나 자료축적을 위한 공간 마련이 아닌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쌓아가기 위한 매체로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 운영하여 내용을 쌓아가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옴. 난민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부터 인종차별의 기원을 다루는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를 통해 난민인권 논의의 기반을 확산시켜 옴. 특히 기존 매체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난민 여성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네일살롱'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등장'하기 어려웠던 난민당사자의 이야기가 웹상에 직접 등장하여 '보이는 존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작업해옴.

한편, 어필은 여타 단체들과 달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력에도 적극적임. 난민판례 데이터 베이스(W4refugees)의 구축 및 파일럿 운용 사례 등을 통해 해외 선진 사례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리소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갈 수 있는 방안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도 지속해 왔음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1. 한국을 피난처로 찾은 난민들의 법적 권리 확인

난민인정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어필의 법률 조력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을 받고 있음. 2022년 9월 말 기준, 올해 한국 법원에서 인정된 난민 사건의 100%(2019-2021년 3개년은 약 55%)을 어필이 조력하였고, 통계가 모두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인 2차 난민위원회 또는 1차 난민심사에서 법률 조력을 거쳐 난민 인정 받은 사건들의 약 70% 역시 어필이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됨. 그동안 어필을 통해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지위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 난민들의 국적을 열거해 보면, 가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로코, 미얀마, 카친 및 로힝야 등 소수민족 부룬디, 사우디,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예멘, 요르단,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집트, 중국, 위구르, 카메룬, 케냐, 콩고, 파키스탄 등이 있음.

2. 선례적 판결 및 입법운동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변화 견인

법률전문가로서 난민사건 관련하여 국내에서 선례가 없었던 제도형성적 판결을 만들어 내서, 행정청의 난민지위 인정을 견인하고, 개별 제도 개선에 기여해옴. ①난민인정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 대법원 승소판결 등 대부분 국적 난민들의 지위 인정 및 난민 협약상 국내 법리 선언에 관한 거의 모든 선례적 판결들, ②공항에 갇힌 난민들에 관한 판결들(최초의 난민불회부결정취소 승소, 최초의 공항 내 송환대기실 및 환승 구역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승소, 행정구금에서 변호인접견의 위헌확인,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경폐쇄), ③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 및 생계비에 관한 판결들, ④억울하게 갇힌 난민의 구금 해제 기준에 관한 판결들(보호명령 취소,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등)이 그것임.

또한 2011년 말 난민법 제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린치핀 멤버로서 성안 및 협상 과정에 기여하여 아시아 최초의 독립적인 난민협약 이행법률 제정 국가가 되도록 하였고, 이후 관련 활동을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들에도 전파하고 국제 연대활동을 만들어 나갔음.

한편, 난민인권활동 연대체들을 핵심적으로 견인해 나감을 통해(어필은 총 활동기간 11년 중 8년 동안 난민인권네트워크 대표를 역임하고 있음) 국내의 난민에 관한 모든 중요 정책적 국면 - 2015년 시리아 난민, 2018년 예멘 난민, 2021년 아프가니스탄, 2022년 우크라이나 - 에서 시민사회의 입장 및 인권규범에 입각한 입장을 제시하여,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책적 개선을 이끌어 내오며 정부 정책 비판과 잘못된 소수자 혐오 목소리에 대항하는 한국시민사회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되어 왔음(제주도

예멘 난민 법률 조력 지원단을 결성하여 거의 모든 예멘 난민들의 최소한의 한국 정착 근거 조력,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긴급 피난에 관한 정책적 기반 연구를 제공하여 작전 성공 견인, 미얀마 -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관한 특별체류조치 촉구를 통한 최소한의 정착 계기 마련)

3. '난민들에게 최후의 기댈 보루'로서, '난민'에 관한 전문가로서 어필의 위치 확립

11년간의 지속적 활동을 통해 어필은 한국사회에서 법률 조력에 있어 최후의 보루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기댈 곳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음. 다양한 국적별 난민 공동체들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현장에서 난민들이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단체'로 위치가 확립된 것임. 또한 국내외 난민에 관한 이슈의 전문가의 의견과 시각이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언론, 학술 공동연구, 정책적 견해 청취에 있어서(최근 미국 하원의 란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도 어필 활동가가 증인으로 출석)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로 위상이 확립되었음.

■ 제3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적대에서 환대로 - 난민 법률 조력 비율의 비약적 향상

원자화된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가 되도록 가장 취약한 바깥 고리에 있는 난민들의 곁에 서는 활동을 해야함. 어필은 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난민인정절차가 개선되어 더 많은 난민들이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재 대부분의 난민들이 난민인정절차에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①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전의 매파워와 기반을 확충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튼튼한 법률 조력의 메카로 기능하게 하고, ②또한 확충된 자원을 이용 어필 바깥에서도 입법적 개선과 제도 변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국선전담변호제도', '소송구조제도'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촉구를 보다 가열차게 펼쳐, 제도적 틀 안에서도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위험에 빠져 한국을 찾은 난민이라면 누구나 한국사회에서는 공정하게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시민사회에서도 조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또한 난민인정의 주체인 법무부와 법원에서 난민협약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촉구함.

난민들이 마땅히 설 자리를 찾도록 - 난민 처우 개선

난민들의 체류할 권리,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의 자유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동시에 난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고지 받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시스템 구축. 특히 제도의 사각 지대에서 위기 상황에 있는 난민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들이 단지 곤경을 피하는 것을 넘어,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이 있는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난민들이 꽃 피울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 난민 인식 개선

난민은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중 인식 개선 도모. 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난민들에 대한 평면적인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서 각 사람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학생, 청년 집단에게 함께 살아가야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이해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찾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 확대

난민인정절차(RSD) 조력을 하는 변호사 수 증가, 전문적인 국가정황정보 리서처 및 통역인 네트워크의 확보, 난민 법률 조력 건수 증가

난민 당사자들의 권리 인식 증진

난민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자료에 대한 통번역 건수 증가, 출입국 및 법원 출석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 지원 건수 증가

위기 난민 지원 건수 증가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들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기 상황에 있는 난민에 대한 재정 지원 건수 증가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난민 당사자의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난민인권단체의 역량 강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의 단체에게 국가정황정보 및 사례관리 시스템, 통번역 네트워크 등의 리소스 공유,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단체와 협력 사업 진행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Scale-Up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양적 확충, 리서처 및 주요국가 통번역인의 안정적 고용 등으로 10여년간 동아시아에서 유례없이 축적해온 전문적인 난민 법률 조력을 위한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마련함.

Scale-Out

어필은 (한국 난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8년간 의장 및 집행부로서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바, 어필이 쌓아온 전문성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타 단체들과 긴밀한 협업 또는 프로보노로 활동하는 로펌 변호사들이 활동에 대한 제도적 리소스 공유방법 확충을 통해 타 단체들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사례지원 관리시스템

조력하는 난민들에 대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 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카이빙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개별 난민들의 사례지원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난민지원정보 다국어 제공 시스템

난민들이 난민인정절차 및 관련 제도, 현황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접근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 구축.